

구복규 군수 “청년 잘사는 화순 만들기 주력”

지방·인구소멸 위기 극복...청년 정책 ‘올인’ 1만원 임대주택·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추진

화순군이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정 운영의 초점을 청년에 맞춰 총력을 기울인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저출생,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 부시인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달에는 청춘신작로팀을 신설해 취·창업, 문화, 복지 등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체계를 갖췄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화순군의 전년대 합계출산율은 0.89명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지원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던 화순군은 민선 8기 들어 우선 자력으

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과감히 추진했다.

처음 반응들은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단돈 1만원에 공급할 수 있느냐’라며 대다수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임대보증금을 화순군이 부담하고 입주자는 월 임대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상·하반기에 50호씩 총 100호 입주를 완료해 142명의 청년이 화순에 유입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도 지난 5월 추첨을 통해 100호를 선정하고 9월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시급했다. 화순군이 서둘러 내놓은 두 번째 정책이 바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이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의 보육 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화순군 제공〉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24시간 돌봄제로써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보육의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큰 주목을 받았고 이용자 수도 날로 급증하는 추세다.

팀 신설 이후 결혼과 출산·양육, 일자리 등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화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출생아 수

가 212명으로 전년대 대비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1만원 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놀라운 혁신 성과를 일궈냈다.

전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1만원 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과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신설 역시 타 지자체들의 정책 도입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화순군은 ‘2023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자체 혁신평가’ 전국 군단위 1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 밖에도 화순군은 ▲화순군 결혼장려금 ▲출산·양육 지원금 ▲영유아 보육료·아동수당 ▲산후조리 비용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안 정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 중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남은 2년 동안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화순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이 잘사는 화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 주요 현안 머리 맞대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개최 “섬박람회 성공, 적극 협력”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을지역위원회가 지역 주요 현안의 국·도비 확보 상호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갑)·조계원(을) 국회의원, 백인숙 여수시의회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안으로 ▲여수 사건 특별법 개정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조속 추진 ▲2025 여수-거문항로 준공영제 확대 지원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 ▲여수세계세탁바람회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김양식장 신규 면허 개발 ▲복합해안레저관광도시 조성 ▲여수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등이 논의됐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호남권역 대용량포장시스템 도입 ▲사도·남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 ▲일레븐 브리지(여수 화대-백야 도로) 건설 ▲가막만 선소지역 오염물 정화복원사업 ▲여수석보 주변정비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 등 19개가 거론됐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여수의 최대 역점사업인 ‘2026여수세계세탁바람회 성공 개최’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바다라는 공유지를 통해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을 창

출하는데 당정과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 발전을 위한 공직자들의 고민과 갑·을 지역 위원회의 고견을 토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위축된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회와 도·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공동된 바람일 것, 당정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행복한 엄마 지원 프로그램’ 호응

출산·육아 불안감 해소 김순호 군수 직접 격려

구례군은 17일 “지난달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1회 총 5차에 걸쳐 진행된 ‘행복한 엄마 지원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 가정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든버러 산후 우울증 자가 척도 검사를 통해 전문가가 산후 우울증 예방과 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나를 알아보는 시간 ▲나와 아이를 위한 축하케이크 만들기 ▲미술 상담 치료 ▲나만의 향을 찾자 ▲숙송의 요리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회차에는 참여자들이 쌍산재 내부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대화를



김순호 구례군수가 ‘행복한 엄마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만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격려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즐기면서 서로의 육아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순호 군수가 참석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엄마들을 격려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다양한 육아 정보와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구례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엄마들의 건강과 행복 지수를 한층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성 기차여행, 반값 할인 가격에 떠나요”

郡-코레일 업무협약 체결 철도 여행상품 50% 지원

장성군은 17일 “지난 16일 인구감소 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했다. (사진)



누리집을 통해 출시하는 8월 철도 여행상품·패키지상품 가운데 장성 여행상품의 철도 운임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여름 장성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추가 모집

내일까지 6곳...외식·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업 대상

담양군은 17일 “오는 19일까지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6곳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13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모

집을 통해 소모품 구매 비용과 배달료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담양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면 누구나 신청

할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성현 경제교통과장은 “고물가 속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적극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훈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현안사업 현장 소통 행보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현장 등 5개소 방문

정인화 광양시장이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갖고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정인화 시장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현장 ▲동광양중학교 통학로 개선 및 버스승강장 설치 건의 현장 ▲광영배수지 운영 현장 ▲육곡덕진2차 맨발길 조성 현장 ▲진월용암세장 아래채 보수정비사업 현장 등 5개소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현장을 찾아 현재 조성 중인 ‘산림레

포츠 시설 진입교량 가설’ 추진 상황과 ‘숲어울림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며, 숲어울림 속박동 조성 시수목 등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각 숙박공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시장은 ‘동광양중학교 통학로 개선 및 버스승강장 설치 건의’ 현장을 찾아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학교 북서측에 약 90m의 통학로를 설치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그는 광영 배수지 운영 현장을 찾아

보안 강화를 위해 광영배수지 내 맨홀 뚜껑 적외선 충격경보시스템과 고지대 배수지 물탱크 출입문 설치를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정 시장은 시 향토 문화유산 제15호인 진월 용암세장의 아래채 보수사업 현장을 방문,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용암세장이 도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문화재 승격 사업 추진을 부탁했다.

정 시장은 “현장의 의견 놓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으로 시민이 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고흥군, 바다부 ‘어가스테이’ 만든다

방치된 빈집 활용...청년 참여 마을홍보 콘텐츠 제작도

고흥군은 17일 “초고령 어촌마을에 대규모 청년들이 들어가 신활력을 불어넣는 바다부 어가스테이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심진 방치된 빈집을 주민과 협업체 새로운 어가스테이 공간

으로 조성하고 마을의 수산자원, 경관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한다.

고흥군과 취도·금사항 어촌영커조 작은 한국해비타트 대학생동아리연합회와 함께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포두면 취도(오취마을)에서 어촌캠프를 진행한다.

가천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총 11개 대학의 30명 대학생이 8월 주민 위주 어촌에 머물며 주거 생활환경 개선, 로컬콘텐츠 제작, 지역-세대 간 연대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어촌캠프를 매개로 어촌지역이 쇠락하지 않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흥=최봉환 기자